

아름다운 시작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개관기념  
경운박물관 재개관기념 특별전

## 〈아름다운 시작〉

2010. 10.18 ~ 12.15

전시장소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內)

주 최 경운회

주 관 경기여자고등학교

전시주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 관장 송광자

책임기획 장경수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부관장

기획진행 박경자(학예사) 김진아(학예사)

전시진행 설영자 배방훈 구복순 최의려 전경숙 이경희 이은경 이윤경(연구원)

유물정리 김귀란 이숙명 강영서 김현순

영문번역 문수열

사 진 서현강

도록디자인 · 제작 디자인이즈 2269 · 9566

발 행 인 송광자

발 행 처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135-800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152번지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內 경운박물관

tel. 02) 3463 · 1336 fax. 02) 3463 · 1331

[www.kwmuseum.org](http://www.kwmuseum.org)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경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제할 수 없습니다.

값 40,000원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개관기념  
경운박물관 재개관기념 특별전

# 아름다운 시작

## 아름다운 시작

경기여고 모든 동문들의 사랑의 힘을 모아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을 2010년 10월 16일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2003년 개관한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은 이번에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전하여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 기회나 사회적 지위가 부족할 때, 경기여고는 순종황제의 황후이신 순정효황후의 휘지에 의해 1908년 한국 최초의 관립여성학교로 탄생하였습니다.

경운박물관은 이러한 순정효황후의 뜻을 기리고자, 황후의 예복이었던 12등 적의翟衣를 재현하였습니다. 순정효황후의 적의 재현은 철저한 유물조사를 통한 실측과 고증에 의하여 12등 적문을 최초로 직조하였으며 우리 동문들이 손 침선까지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제작한 역사적 기념물입니다.

그 외 왕실 복식과 장신구의 재현사업도 고증에 의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마침 제가 관장으로 재직 중에 이러한 뜻 깊은 사업을 하게 된 것을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재현 사업을 후원하였습니다.

경운박물관 재개관 특별전 “아름다운 시작”은 경기여고의 새로운 100년의 시작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인 혼례의 의미를 되새기어 혼례복과 장식품 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 전시에 귀중한 유물을 협조해주신 일암관,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그리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은 여러 동문들의 사랑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한국 대표의 여자고등학교 박물관으로서,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운박물관장 송 광 자



## 염원을 실현하는 소중한 첫걸음

하늘은 높푸르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개교 102주년인 이 가을, 우리 경운회는 그 어느 해 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동창의 날」을 맞이합니다.

지난 5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4만여 동문들이 한마음이 되어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모아 건립한 「경기여자고등학교 100주년기념관」이 드디어 문을 여는 이 기쁜 날에 경운박물관이 개관 축하 특별전을 갖게 된 것은 기쁨에 기쁨을 더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교 경기여고는 조선 마지막 임금 순종 황제의 비 순정효황후께서 교지를 내려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공교육 기관입니다.

경운박물관이 개관 축하의 의미를 살리고자 순정효황후께서 입으셨던 대례복인 적의翟衣를 재현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기획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작'인 혼례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는 100주년기념관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같이 배우고 나누기 위한 사랑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라는 4만여 경운회원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며, 경운회가 펼치고자 하는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산 교육이요, 지역사회 이웃주민들을 위한 문화 나눔의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리신 경운박물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물관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동문들의 열정 덕분에 경운박물관이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박물관계에서 크게 인정 받고 있음은 우리 경기여고와 경운회의 큰 자랑입니다. 전시회를 위해 애 쓰신 경운박물관 여러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개관 기념전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경기여자고등학교 동창회 경운회장 유 중 근



## 차 례

아름다운 시작 8

진찬도 14

적의 20

왕실복식 42

활옷 56

혼례복 76

장신구 98

글 / 김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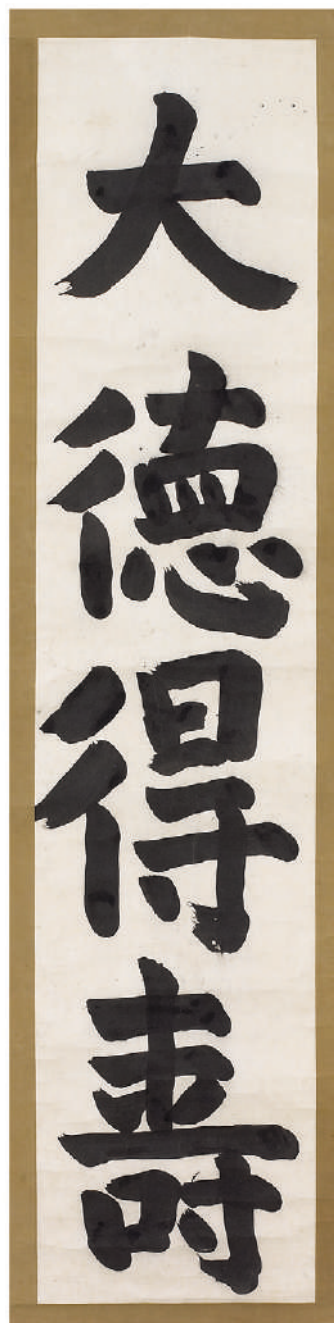
조선왕실의 적의 172

유물목록 190



왕실 가족, 의친왕, 순종황제, 덕혜옹주, 영친왕, 고종 황제, 순정효황후, 의친왕비, 이건.

아 름 다 운 시 작



1 순종 어필 純宗 御筆

Emperor Sunjong's Autograph

19세기 말 ~ 20세기 초

길이 134cm 너비 31.5cm

〈大德得壽〉 큰 덕을 지닌 사람은 장수를 누린다. 공화랑 소장



## 2 순종비 순명효황후 어필 純宗妃 純明孝皇后 御筆

Empress Sunmyonghyo's Autograph

1902년

가로108cm 세로56cm

〈翠澗〉壬寅暮春

영롱한 비취빛 산골짜기라는 뜻으로 1902년 저문 봄날에 쓴 글씨이다. 공화랑 소장

## 황후폐하휘지

나는 생각하건대 역대 임금께옵서 문교를 숭상 장려하시어 백행을 닦고 여자는 삼덕을 숭상하여 나라가 평화롭고 가정이 화목하더니 세습이 날로 강쇠하고 실학이 점차로 미약해져서 우리나라의 문명이 마침내 세계에서 후진하게 되었으니 심히 개탄하는 바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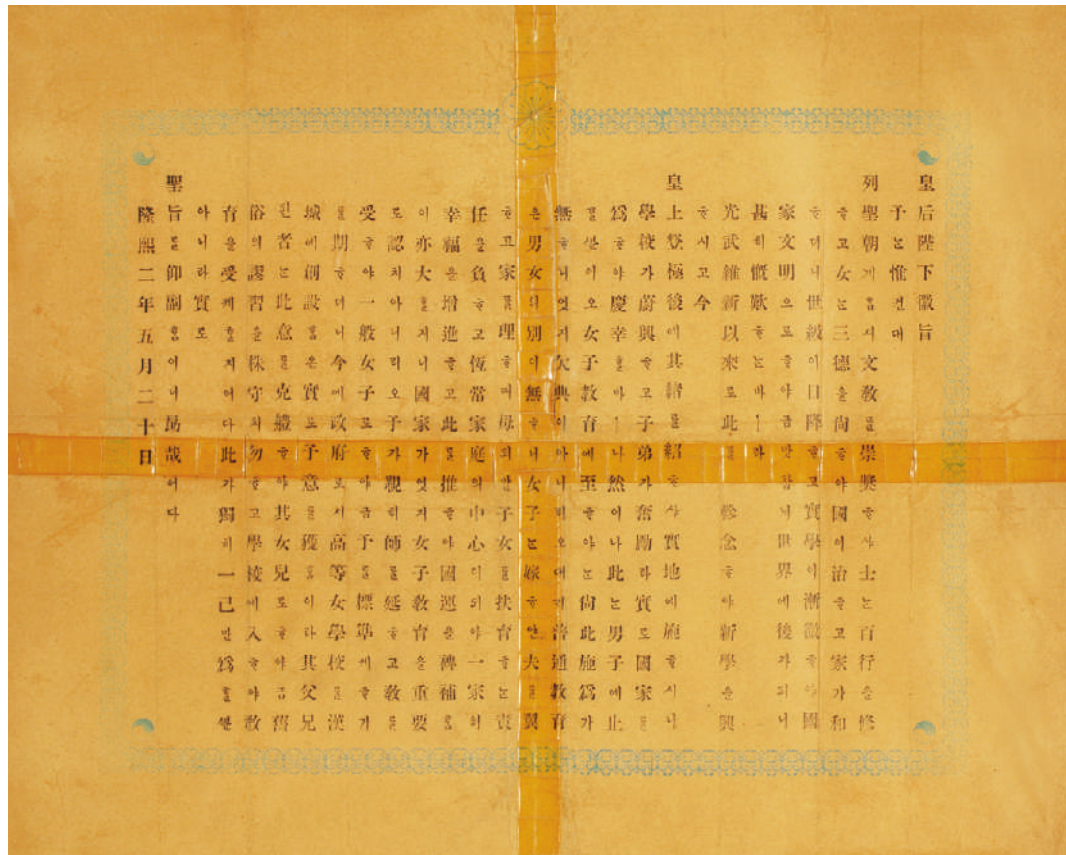
광무유신 이래로 이를 마음 아파하여 신학을 일으키시고 이제 황제 등극 후에 그 성지를 이어받아 실지로 시행하시니 학교가 성하게 일어나고 자녀가 분려하니 실로 국가를 위하여 경하할 바이나 이는 남자에 그칠 뿐이요 여자교육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그 시행이 없으니 어찌 결전이 아니겠는가

대개 보통교육은 남녀의 구별이 없으니 여자는 출가하여 남편을 돕고 가정을 다스리며 어머니가 되어서는 자녀를 부육하는 책임을 지고 항상 가정의 중심이 되어 일가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를 추진하여 국운을 비보함이 또한 클지니 국가가 어찌 여자교육을 중요시 하지 않겠는가

내가 친히 스승을 맞아 교육을 받았으며 일반여자도 하여금 나를 표준케 하기를 기하더니 이제 정부가 고등여학교를 한성에 창설함은 실로 나의 뜻을 이룸이라 그 부형된 사람은 이 뜻을 잘 이해하여 그 여아로 하여금 구습을 버리고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게 할지니라 이는 나 개인 한 몸만 위할 뿐이 아니라 실로 성지를 우러러 받들으니 모름지기 힘쓸지어다

융희 2년 5월 20일





### 3 순종비 순정효황후 휘지 純宗妃 純貞孝皇后 徽旨

Empress Sunjeonghyo's Royal Edict to found  
an Educational Institution of Women by the Government in Korea.  
1908년(융희2년)  
가로47cm 세로38cm

헌종무신진찬도 憲宗戊申進饌圖 (부분)

진 찬 도



#### 4 헌종무신진찬도 8곡병 憲宗戊申進饌圖 八曲屏

Folding Screen with a Painting of Banquet held by King Heonjong

184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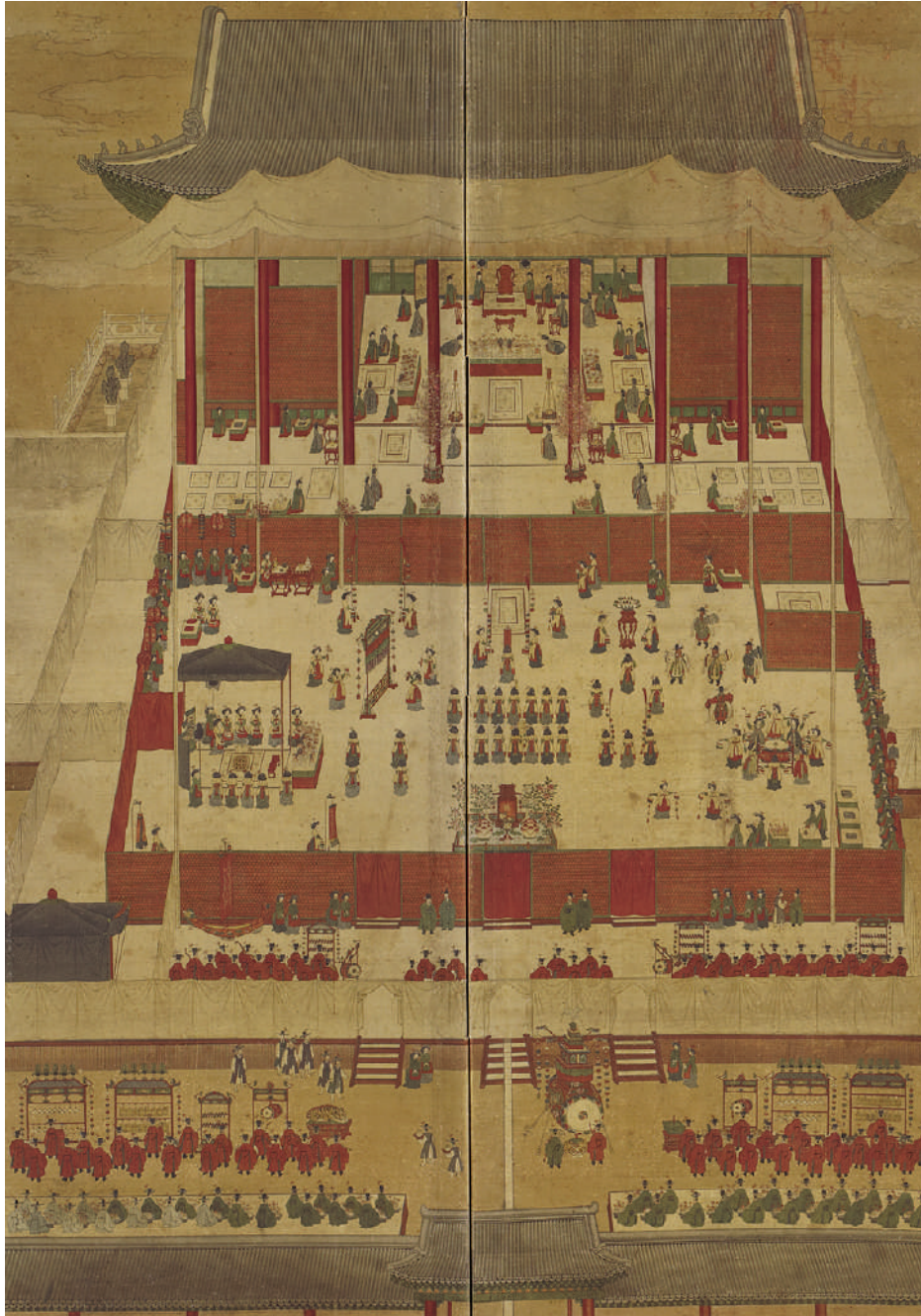
세로137.5cm 가로388cm

현종14년(1848) 戊甲年 3월 대왕대비의 육순과 왕대비의 41세 생신을 맞아 현종의 발의로 베풀어진 진찬 행사를 그린 것이다.

진찬은 왕을 위한 경우 왕세자가 발의하였고, 왕대비나 왕비를 위한 경우 왕 또는 왕세자가 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육순과 같은 주요한 생신 때는 일반 생신과는 달리 성대한 연회, 풍성한 음식과 기물, 음악과 무용을 동원하여 장중한 의례를 이루었으며, 진찬이 끝난 후에는 이때의 행사를 길이 보전하고 후일의 참고자료로 삼기위해 의궤를 작성하였다. 이 진찬의 의궤는 현재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적 의 翟衣





## 5 황후 적의 皇后 翟衣

*Jeog-ui.* The Best Ceremonial Robe for Empress. Replica

20세기 초

길이151cm 화장105cm 품52cm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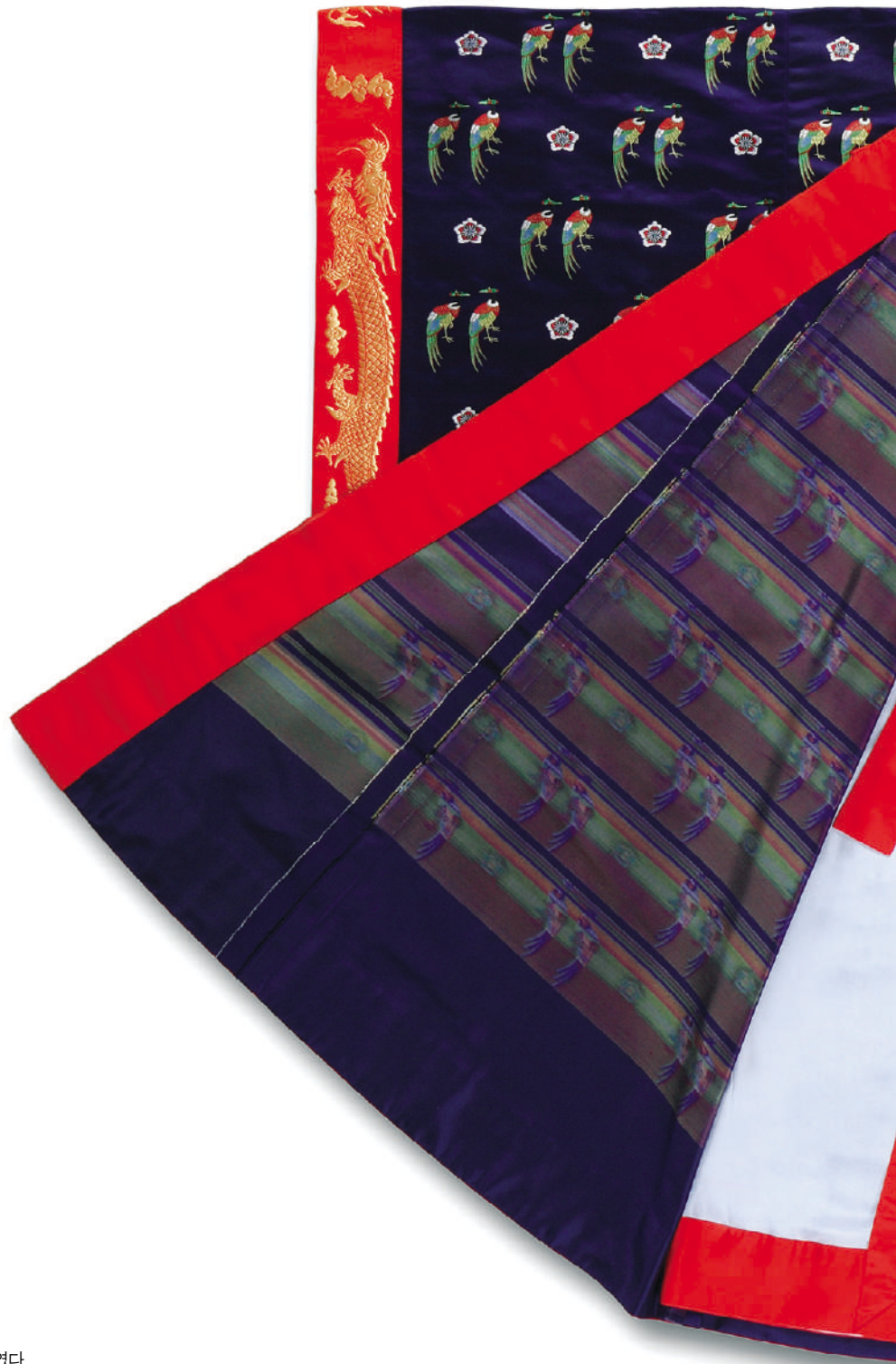
수구袖口 선단



금사용문보 金絲龍紋補 (앞길)







## 중단 中單

길이151cm 화장100cm 품51.5cm

중단은 겹옷 아래에 받쳐 입는 받침옷으로 청회색 명주로 하였다.  
깃, 도련, 수구에 홍색 능직으로 선을 대고, 홍색 고름을 달았다.  
깃에는 불문(黼文) 11개를 부금하였다.





적의翟衣는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시대에 이르기까지 500년 이상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황후, 황태자빈의 법복으로 착용되면서 면복冕服과 함께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례복이다.

적의 제도는 크게 세 차례의 변천과정이 확인된다. 첫 번째 시행된 적의제는 고려 공민왕 19년 명으로부터 사여받은 청질 적의 제도, 두 번째 적의제는 명 패망 이후 대한제국 이전까지의 조선식의 국속제 적의제도, 마지막 대한제국 시대의 심청색 황후 적의 제도는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근거하여 수용하였으나 황후 적의 제도에 없는 대삼제의 하피를 포함하였다. 심청색 적의는 1897년 7월 대한제국 성립이후 황후, 황태자빈의 대례복인 법복法服으로 착용하였고 꿩무늬 적문翟紋과 소륜화小輪花의 배열 등급에 따라 황후와 황태자빈의 구분이 있었다.

전시된 적의는 순종 비 순정효황후께서 세종대학교 설립자에게 하사한 유물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영친왕의 기미년(1919년) 가례준비 차 제작되었던 적의를 재현한 것이다. 심청색 공단貢緞 바탕에 적문이 12줄로 직성되어 있으며 적문 사이에 이화李花가 함께 직성되어 있는 홀옷이다. 깃부분과 도련, 수구에는 홍단紅緞에 용과 구름을 직금으로 제작한 직금운용문織金雲龍紋이 둘러져 있으며 사이사이에 불꽃을 상징하는 화염문火焰紋이 장식되어 있다. 중단의 선단은 무늬가 없는 홍색 명주를 대어 주었다. 고대 양 쪽에 쌍밀이 단추고리가 있고 용보의 상단 중심과 좌우에 쌍밀이 고리 세 개가 나란히 달려 있다. 뒷길 도련 중앙에도 쌍밀이 고리가 달려 있는데, 하피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단은 적의 속에 받쳐 입는 홀옷으로 적의보다 미세한 차이로 작게 만들어져 있다.

가슴과 등 양어깨에 달려있는 보는 발톱이 다섯개인 오조룡문五爪龍을 보문 수파문과 함께 금사로 수를 놓았다. 폐슬은 무릎을 가리는 의식용구라 하여 명명하고 있으나 앞부분 중앙 옥대에 걸게 되어 있다. 바탕색의 문양은 적의와 같다. 하피는 검은색 공단 바닥에 분홍색 삼팔주를 넣어 겹으로 만들고 적문과 달리 날개와 꼬리를 편 적계문翟鷄紋과 운문雲紋이 양쪽으로 13개씩 중앙을 향하여 각각 26개씩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다.

적의 제도는 적관용 대수大首를 비롯하여 옥규, 적의(용보龍補 부착), 중단, 상, 폐슬, 하피, 옥대, 대대, 패옥, 수, 말, 석 등으로 일습을 이룬다.

#### The Most Formal Robe of Court Attire. Replica

*Jeok-ui*, the exquisite brocade ceremonial robe for the Queen or Empress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Daehan Empire, adapted from Ming China and reformed three times its system. The deep blue *Jeok-ui* was worn by the Empress and the consort of Imperial Prince during the Daehan Empire.

Two of *jeok-ui* handed down until now. The one, worn by the consort of Imperial Prince Ui, housed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and the other one, worn by Empress Sunjeonghyo, the consort of Emperor Sunjong, housed in Sejong University Museum. This is the replica of the later one. It featured prominently twelve rows of woven pheasants with *yiwha* (*Prunus salicina* blossom), the symbol of Royal Authority, while the consort of Imperial Princess Yeong's robe was woven with nine rows. It is single layered, made of dark indigo brocade, and bordered with red twill with golden supplementary weft in dragon and flame design. The inner robe, *jungdan* is made of light gray blue plain silk, bordered with red. Golden leaf Chinese characters, 亞, are imprinted on the collar. The *jeok-ui* suited with *daesumeori*, *Jungdan*, *sang*, *pyeseul*, *hapi*, *okdae*, *daedae*, *paeok*, *mal*, *seok* and etc. [big wig with various hairpins, inner robe, decorative skirt, decorative knee cover, long sash, jade girdle, sash, sash with jade strins, blue socks, ceremonial blue shoes, and etc.].







## 적의 재현작업

자문諮問	조효숙 김소현	청석靑鴉	황해봉
후수後綬	이상숙	금사金絲	노진선
직조織造	강석문	자수刺繡	유미강
금박金薄	김기호	대수머리 수식首飾 패옥佩玉	김영희

침선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유물재현팀

강영서 공희숙 김귀란 김명희 김선희 김현순 배방훈 설영자 오현옥 이숙명 이은경  
임연옥 장경수 전경숙 최의려 이윤경

지도

안인실 박경자 김진아

※ 본 유물재현사업은 송광자 관장님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하피 霞帔

길이498cm 너비11.2cm

하피霞帔는 적의 착장 후 어깨에 걸쳐 앞으로 드리우는 장식용 제구이다. 검정색 5매 주자직이며 적계문翟鷄紋과 운문雲紋이 부금 되어 있고 어깨선을 중심으로 문양이 대칭을 이룬다.







금사옹문보 金絲龍紋補 (뒷길)



뒷길 도련 선단 중앙



뒷길 도련에 하피를 고정한 모습



적의 뒷길 상단

## 폐슬 蔽膝

길이55.3cm 폭(上)27cm (下)33cm

폐슬은 허리 아래로 드리워 하체를 가리고 공경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식적인 부속 제구 중 하나이다. 직물과 문양은 적의와 동일하다. 옥대에 걸 수 있도록 폐슬의 상단 좌우에 쇠고리(구자鉤子)를 달았다.







적의 직물은 바닥 조직은 7매 주자직으로 148쌍의 적문과 이화문을 12등으로  
무늬를 넣어 짠 옷감이다. 적문은 황색, 연두, 홍색, 흑색, 백색, 남색, 비취, 초록 등 8가지색으로,  
이화문은 황색, 백색, 홍색, 초록 등 4가지색 실로 직조하였다.





적의 직물 이면裏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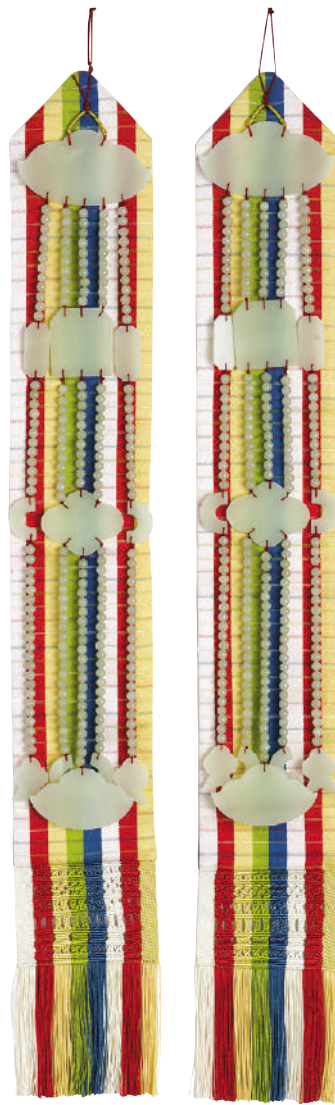
## 대대 · 후수 大帶 · 後綬

대대 길이75cm 너비10cm 후수길이83cm 너비23.2cm

대대는 적의 착용 후 뒤 부분을 장식하는 허리띠의 일종이다.

허리부분과 두 자락 신으로 구성되며 광다회로 앞에서 묶는다. 신과 신 사이는 후수를 늘인다.

이 유물은 영친왕비 유물(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을 근거로 재현되었다.



## 패옥 佩玉

길이 77cm 너비 9cm

예복을 입을 때 양 옆에 늘이는 장식품이다.

형, 우, 거, 충아, 황, 옥적 등 여러 형태의 옥과 구슬로 연결하여 패대 위에 올렸다. 걸을 때마다 서로 장식이 부딪혀 소리를 낸다.





## 6 대수머리 수식 大首 首飾

Various Hairpins Suited with the Big Wig  
20세기 초

대수머리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대례大禮를 행할 때 왕비가 갖추는 가채加髻의 하나이다. 전체적인 머리 형태를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 여러 개의 비녀, 뿔잠, 마리삭댕기 등으로 장식하여 직접 머리에 쓰도록 만든 가발로 수식품이 다양하고 매우 화려하다.

대수머리에 사용되는 수식으로 장잠, 가란잠, 용잠(대룡잠, 소룡잠), 원잠, 후봉잠, 진주잠, 나비뿔잠, 옥선봉잠, 선봉잠, 마리삭댕기 등이 있다. 본 유물은 영친왕비 대수머리 수식(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에 근거하여 제작되었다. 재현수식



마리삭댕기



의친왕義親王의 5녀인 이해경李海瓊 동문(36회). 1956년

# 왕 실 복 식



순종비 순정효황후.





## 7 남바위 煖帽

Nambawi, Winter Hood  
19세기 말 ~ 20세기 초  
길이32.5cm 너비37.5cm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가 사용하던 남바위이다.  
남바위는 조선시대 남녀의 방한용 모자로 정수리는 뚫려있고 귀와 목,  
머리를 덮는 형태이다. 이 유물은 겉감은 남색 대화단이며  
붉은 색 볼끼가 붙어있다. 안팎 사이에 담비털과 토끼털로 장식되어 있고  
길상문과 소화문, 새 등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다.  
오른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 8 토시 吐手

Tosi, Wristlets  
19세기 말 ~ 20세기 초  
길이25cm 너비14.5cm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가 사용하던 토시이다.  
토시는 남녀 공용으로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해  
팔목에 끼는 물건이다. 이 유물은 남색 문단에 토끼털을 달았다.  
오른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 9 원삼 圖衫

Wonsam. Ceremonial Robe for Women  
19세기 말  
길이146cm(뒤) 화장114cm 품43cm





원삼은 조선말기 궁중 여성과 사대부士大夫 부인의 대례복으로 신분에 따라 색과 금박의 문양을 달리하였다. 이 녹원삼은 의친왕비義親王妃가 입었던 원삼으로 길과 소매부분은 연두색 도류사桃榴紗로 만들고, 소매끝의 색동 부분은 홍색과 황색의 금선단金線緞으로, 한삼은 소색 생고사生庫紗로 만들었다. 어깨와 도련에는 수복화문壽福花紋 금박을 찍었으며, 한삼에는 수자壽字 금박을 찍었다.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both women in the royal court and nobility women wore the *wonsam* as a grand ceremonial robe. Its colors and golden leaf patterns varied according to their status. This *wonsam* worn by the consort of Imperial Prince Ui, Kim(Yeonan Family) is made of silk gauze with peach and pomegranate patterns. The sleeves are patched with yellow and red satin damask stripes with golden supplementary weft and the cuffs are patched with off-white silk gauze. The shoulders and sleeves are decorated with golden leaf in floral patterns and chinese characters, which symbolize longevity, happiness and fecundity.

의친왕비.







## 10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Jacket

19세기 말

길이86cm 화장67cm 품39cm

당의는 조선말기 궁중 여성과 사대부 부인이 저고리 위에 입은 소례복小禮服이다.

비빈妃嬪의 것은 금박金箔이나 직금織金으로 장식하였으나 사대부 부인의 것에는 장식하지 않았다.

이 녹색 당의는 의친왕비義親王妃가 입었던 것으로 겹감은 연두 생고사生庫紗,

안감은 진분홍 생고사로 지었으며 어깨와 도련에는 봉황문 금박을 찍었다.

가슴과 양쪽 어깨에는 금사로 수놓은 오조룡보가 붙어있다.



완순군(고종의 사촌)의 손부이신 신계완(22회)동문의 결혼사진(1933년).



## 11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Long Jacket

1920년대

길이84.5cm 화장68cm 품48cm

청록색 모본단(模本緞)에 붉은 안감을 대어 지은 동절기용(冬節期用) 겹당(重唐)의이다.

붉은 모본단(模本緞) 고름과 흰색 거들지를 달았다. 이 유물은 완순군(完順君(고종황제의 사촌)의 손부이신 신계완(22회) 동문이 입었던 옷이다.





## 12 단령 團領

*Danryeong.* Official's Uniform with Round Neck

19세기 말

길이125cm 확장90cm 품50cm

단령은 관복官服이나 혼례복婚禮服으로 착용되었다. 가슴과 등에 사각형의 흉배를 달아

그 문양에 따라 문·무 계급을 나타내었다. 혼례 때는 바지, 저고리에

북청색 또는 남색의 단령을 입고 허리에는 각대를 두르고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목화를 신었다.

이 유물은 원순군完順君(고종황제의 사촌)의 단령으로 금사 쌍학흉배가 달려있어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종친宗親임을 나타낸다. 아청靑 雲문사雲紋紗에 청색 안감을 대어 만들었다.







### 13 양관 梁冠

Yangwan. Ceremonial Hat Worn with Official Robes  
19세기  
높이23.5cm 둘레56cm 목장길이28.5cm

조선시대에 문무백관이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을 입을 때 쓴 관冠이다. 관의 앞면 중앙의 금색 세로선을 양이라고 하며 머리 둘레와 뒷부분에 당초문을 도금하고 관을 가로 지르는 목장도 금칠을 하여 금관이라고도 한다. 품계에 따라 양의 수가 다르다. 이 양관은 5량관으로 1품관에 해당한다. 일암관 소장



### 14 홀 牙笏

Hol. Ivory Mace  
18세기 ~ 19세기  
길이37.8cm 너비4.8cm/3.5cm

홀은 조선시대 왕을 알현할 때 손에 쥐던 것으로 여쭙 말이나 이르는 말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였는데 나중에는 의례적으로 쓰였다. 1품에서 4품까지는 상아, 5품에서 9품 까지는 나무로 만들었다. 일암관 소장



## 15 조복 朝服

Jobok. Officials's Ceremonial Court Attire

19세기 말

적초의 길이96.5cm 화장103cm 품53cm 청초의 길이131cm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나라의 경축일이나 조칙詔勅을 영표할 때 등 경사스런 의식에 착용한 것으로 최고의 백관 예복이다. 검은 선을 두른 적초의赤綯衣, 청초의靑綯衣, 상궤와 폐슬蔽膝을 착용하고 여기에 후수後綬, 대대大帶, 각대角帶, 패옥佩玉을 갖추고 금관金冠(양관梁冠)을 쓰고 홀忽을 들며 해鞋를 신는다. 순인純仁으로 지은 이 유물은 조선말기 완순군完順君 집안에서 착용하였다.





활옷 앞길 하단 자수 부분



활 웃

활옷(華衣)은 고려 및 조선시대의 공주나 왕자의 대례복 또는 상류계급의 혼례복으로 사용된 복식이다. 숙종연간에 일반인에게도 허락되어 지금까지 혼례 시 폐백옷으로 입혀지는 화려하게 자수된 예복이다.

조선 후기(19세기)의 활옷으로 추정되며 1993년 New York Sotheby's 경매에서 공개되었고 이후 일암관—岩館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시되는 귀중한 유물이다.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The Metropolitan Museum에 전시된 바가 있는 이 유물은 홍색 바탕에 화려하게 수가 놓인 혼례복이다. 여러 차례 고쳐 입은 흔적이 있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며 혼례복으로 수 차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색 공단 바탕에 모란, 연꽃, 보문, 천도, 수파문, 봉황문 등을 정교하게 수놓았고 수복강녕壽福康寧, 이성지합二姓之合, 오자등과五子登科, 백복지원百福之源 문구도 함께 수놓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부의 염원을 함께 담았다. 안감은 길 부분에는 청색문단을 넣고 소매부분에는 두툼한 무명을 넣었다. 자수한 부분은 한지로 배접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두텁게 접은 한지심을 넣어 솜을 든 것과 같은 두툼한 질감을 주었다.

구성적인 면으로는 뒷길은 통판으로 이음선이 없고 어깨에 이음선을 주어 앞품을 뒷품보다 넓게 하여 앞길이 편안히 놓이게 하였다. 깃은 맞깃으로 고풍으로 여미게 하였다. 길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 뒷 진동 길이를 앞 진동 길이 보다 짧게 한, 몸의 움직임에 고려한 활동적 구성법도 특이하다.

수의 기법 평수, 이음수, 자련수, 가름수, 씨앗수, 징금수 등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가는 연금사 4겹으로 문양의 테를 두른 징금수는 지금은 훼손이 심하지만 그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이다. 문양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한 가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사물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자수하여 해학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공주나 왕주,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대부가 여자들의 혼례복으로 추정되며 여러 차례 보수한 흔적이 남아있어 역사의 흐름과 옷감의 변천도 함께 고찰 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어깨선을 보수하기 위하여 금박당기를 잘라 이용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국말의 혼란한 시기와 일제 강점기에 외교관, 선교사, 상인 등에 의해 해외에 흩어진 우리의 유물, 그 중에서 미국의 The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in Chicago, The Peabody Essex Museum, The Natural History Museum at the Smithsonian Institution, The Brooklyn Museum 등에 소장되어 있는 18세기 ~ 19세기 유물과 비슷한 아름다운 활옷이 고향을 찾아 돌아왔다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 16 활옷 華衣

*Hwal-ot.* Embroidered Bridal Robe

19세기

길이109cm 화장97cm 품40.5cm

일암관 소장

Bridal robes, *Hwal-ot* were worn by the princesses or the daughters of the nobility of the Joseon period for the wedding ceremony during the memorial rites of groom's ancestor after the wedding. It was officially permitted to the commoners for the wedding ceremony during the reign of King Sookjong. The red silk satin robe is filled with auspicious patterns, composition of lotus, peony flowers and leaves, stylized waves, rocks, pear blossom, phoenix, Chinese characters symbolizing the happiness, longevity and fecundity. It have blue lining, long back and short front panels, front opening and vents on the sides. Elaborate, rich embroidery on two front panels, a seamless back panel, sleeves, and shoulders of red silk satin, made the *hwal-ot* brilliant sumptuous. The long sleeves are accentuated by *saekdong*, stripes of yellow, blue and red ending with embroidered white cuffs.

This *hwal-ot* has a special meaning because it have returned to Korea after a long absence since early 20th century by one collector from the New York Sotheby's auction held in 1993. This is regarded as one of our textile works of 18th or 19th century, which were taken out of the country by foreign diplomats, missionaries and brokers during the tumultuous years at the end of Joseon period, from the japanese colonization through the Korean war. It is similar to the ones housed in the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in Chicago, the Peabody Essex Meseum, the Natural History Museum at the Smithsonian Institution, and the Blooklyn Museum

Through the marks of repair and patch on this beautiful garment, we can see the periodical change of textile as well as the flow of history.







뒷길 상단 자수 부분 (모란, 천도, 도화桃花, 이성지합二姓之合, 백복지원百福之源)





앞길 하단 자수 부분 (구봉문九鳳紋)





어깨선에 금박 땡기를 덧대어 보수한 모습



앞길 상단 자수 부분 (보문:서책書冊, 서각犀角, 수복강녕壽福康寧, 오자등과五子登科)













좌측 한삼, 색동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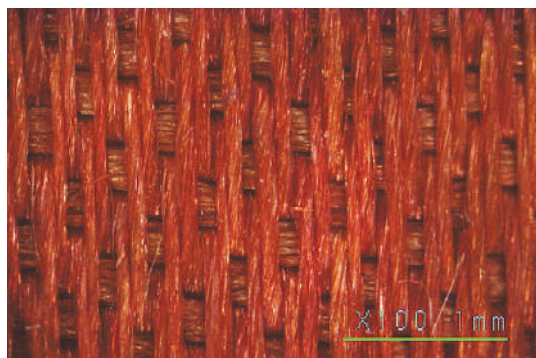
우측 한삼, 색동 부분, 여러 차례 보수한 부분



# 활옷에 사용된 직물

심연옥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활옷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옷감이 사용되었다. 몸판의 앞, 뒤와 소매는 홍색공단을 사용했으며 조직은 8매 3뿔 경수자조직이다.



〈그림1〉 몸판 홍색 공단 1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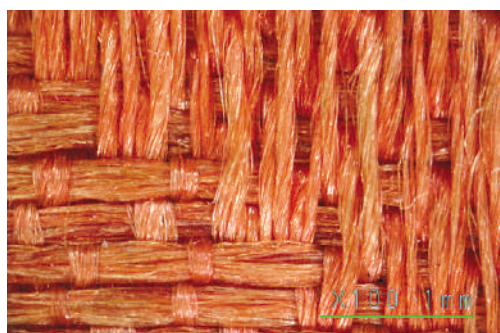
몸판 가슴부분에는 양쪽에 도류불수문단이 대어져 있다. 단층단색의 문단紋緞직물로 바탕이 8매 경수자조직, 무늬가 8매 위수자조직으로 제작된 전형적인 조선후기 단직물의 조직구조이다. 다양한 형태로 도안된 복숭아, 석류, 불수가 나뭇가지로 연이어져 있고 중간에 복숭아꽃과 꽃송이를 더하였다. 복숭아天桃, 석류石榴, 불수감佛手柑은 삼다三多를 상징하는 과실무늬로 삼다는 다남多男, 다복多福, 다수多壽를 의미하며 주로 조선시대후기 1800년대 여성복식의 문양으로 많이 쓰였다.



〈그림2〉 활옷 앞길 상부



〈그림3〉 활옷 앞길 상부



〈그림4〉 100배

몸판의 안감은 앞길과 뒷길에 이어 연 옥색의 절화접문단折花蝶紋緞을 대어 오다가 앞길 끝에만 청색 영초단을 대었다. 연옥색의 절화접문단은 비교적 굵은 실을 사용하여 8매 수자조직으로 제작되었으며 난초는 뿌리까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같은 문양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초에 많이 나타나는 문양으로 안동 김씨묘에서 출토된 직물에도 유사한 문양이 보인다.

안길 안감 하단에는 청색의 도류불수문 영초단이 대어져 있다. 영초단은 평조 직 바탕에 8매 경수자조직으로 문양을 짠 단층의 문직물로서 고종 대에 많이 사용된 직물이다.

소매의 색동은 미색, 홍색, 청색으로 대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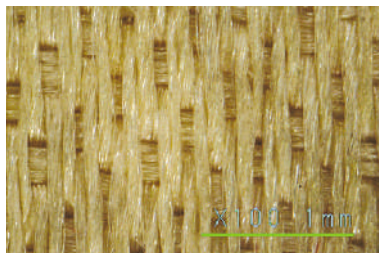
오른쪽 소매는 앞쪽에 미색의 수복화문단壽蝠花紋緞, 홍색공단, 청색 금문단錦紋緞이 차례로 이어져 있으며 왼쪽 소매 앞은 미색 공단, 홍색 공단, 청색 금문단錦紋緞이 이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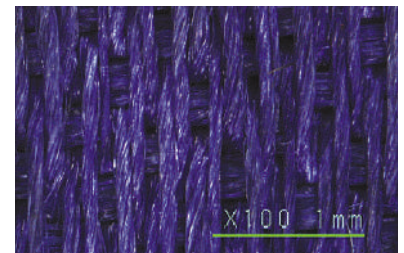
〈그림5〉 우측 색동



〈그림6〉 우 색동



〈그림7〉 우 미색 1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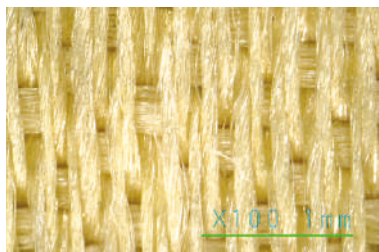
〈그림8〉 우 청색 1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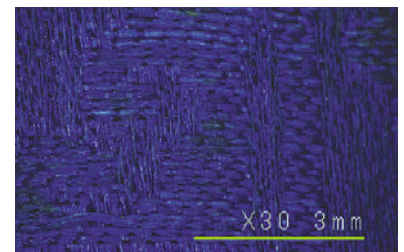
〈그림9〉 좌측 색동



〈그림10〉 좌 색동



〈그림11〉 좌 미색 100배



〈그림12〉 좌 청색 100배

금문錦紋은 사각형, 단과團窠, 육각형의 기하문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여 사방, 육방, 팔방으로 연이어지도록 도안하고 안에는 다시 화문, 구문毯紋 등을 채워 넣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금문은 중국의 송, 원대에 유행한 팔달운八達暈의 금문에서 유래한다. 팔달운은 팔대운八大量 이라고도 하며 송대의 사료에서 그 이름이 보이고 당시에는 육답운六答暈, 팔화운八花暈, 팔답운八答韻이라고도 했다. 중국의 학자 중에는 팔달운금을 ‘천화금天華錦’ 이라고 하기도 한다. 팔달운문의 금직물은 송대 뿐만 아니라 명, 청대까지도 많이 사용되었다. 본 유물의 금문단은 청대의 직물로 추정된다.

오른쪽 소매 뒤쪽은 앞보다 더 많이 보수하여 다양한 옷감을 잇대어 만들었다. 색동의 황색은 길게 두 조각의 황색문단을 사용했으며 문양은 불교의 팔길상문八吉祥紋중 하나인 보개寶蓋와 만자가 들어간 호로병이 배합되어 있다. 보개는 연화위에 올려져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홍색 색동 부분은 도류불수단桃榴佛手緞과 편복운문단蝙蝠雲紋緞을 이어서 만들었다. 박쥐와 실구름이 있는 문양은 조선말 영초단에도 많이 쓰인 문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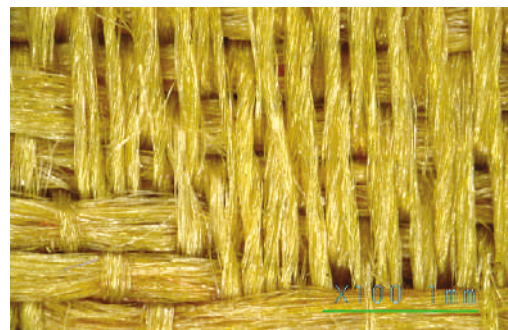
청색은 머루문양의 회청색 단과 청색명주, 청색문단이 덧대어져 있다. 머루문양단은 작은 머루송이와 잎이 어우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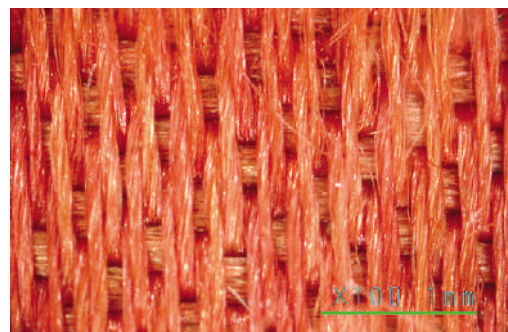
〈그림13〉 뒷길 우측 색동 보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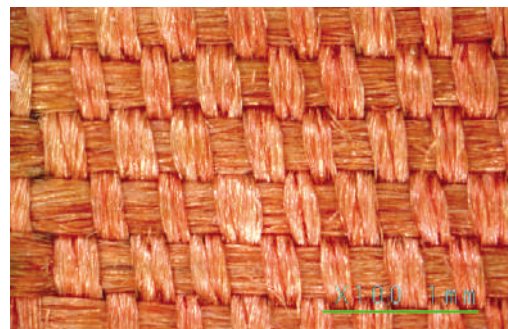
〈그림14〉 우 뒤 색동



〈그림15〉 우 황색 100배



〈그림16〉 우 홍색 1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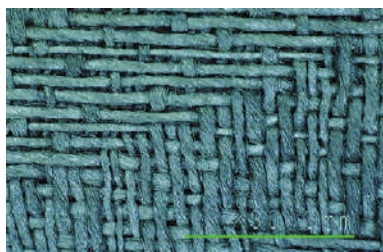
〈그림17〉 우 홍색 1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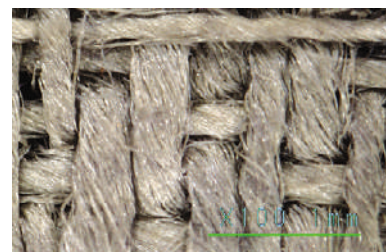
단아한 느낌이 나며 대단히 현대적이다. 청색문단은 많이 훼손되어 있어 정확한 문양은 알 수 없다. 왼쪽 소매 뒤쪽은 앞과 마찬가지로 미색의 수복화문단壽蝠花紋緞, 홍색공단, 청색 금문단錦紋緞이 이어져 있다.

그 외에도 앞길 가장자리에 이색홍색운문단을 대어 보강하였으며 소매하단에는 근년에 보수한 것으로 보이는 현대 직물로 보강되어 있다.

한삼은 소색공단으로 만들었으며 하단 끝에는 직물의 끝부분으로 추정되는 곳에 한자가 직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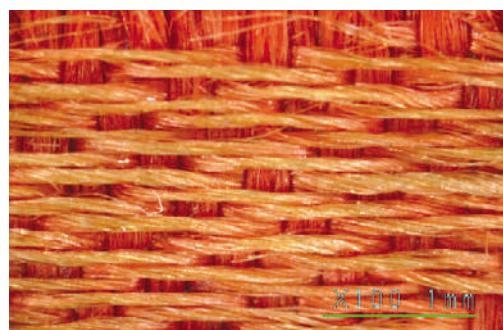
〈그림18〉 우 청색 100배



〈그림19〉 우 회청색 1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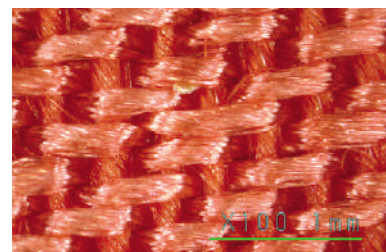
〈그림20〉 이색홍색운문단



〈그림21〉 1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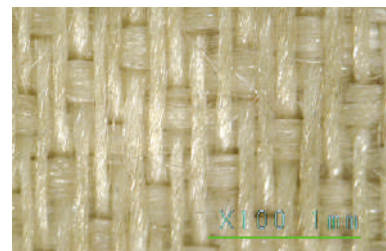
〈그림22〉 현대직물



〈그림23〉 100배



〈그림24〉 한삼부분



〈그림25〉 한삼 100배

본 유물은 구성하고 있는 옷감들로 미루어 볼 때 180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된 것으로 보인다.







## 17 화각함 華角函

*Hwagak-ham*. Storing Box of Hwal-ot Decorated with Ox-horn sheet  
19세기

가로57cm 세로32cm 높이32.5cm

앞에 소개된 활옷을 보관하는 함이다. 각 면에 십장생을 비롯하여 사군자, 용봉문, 기린문, 화조문 등을 화려하게 채색한 후 우각牛角을 정교하게 붙여 장식한 화각함이다. 화각 사이는 우골계선牛骨界線으로 면분할하여 화각 사이의 이음새를 마무리하였다. 뚜껑의 가장자리에도 우각을 붙여 돌렸다. 우리나라 고유의 기법으로 우아하고 장식적 효과가 뛰어난 유물이다. 일암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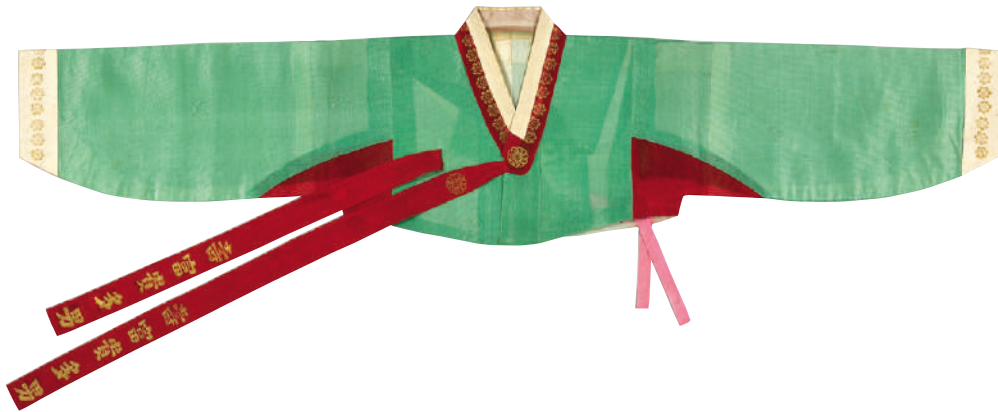


기러기 木雁

Mokan. Wooden Wild Goose Used for Wedding Ceremony  
19세기 길이 38cm 일암관 소장

# 혼 레 북





## 18 삼회장저고리 三回裝赤古里

Samhoejang-Jeogori. Bridal jacket

1920년대

길이26cm 화장62cm 품42.5cm

겉은 연두 순인純仁으로 만들고, 소색 초納안감을 넣었다.

고름에는 수복부귀다남壽福富貴多男의 금박을 찍었고,

백색 명주 거들지를 달고 국화문 금박을 찍었다.

1920년대 혼례에 입었던 것이다.

## 19 옷치마 赤𦏧

Utchima. Women's Ceremonial Apron

1940년

길이116cm 치마허리둘레78cm 치마폭132.5cm

원삼 밑에 입는 예복용 덧치마이다. 소화문小花紋 자적 순인純仁을

홀으로 하고, 안쪽에는 남색 명주로 5cm 너비의 선을 돌렸으며

치마 허리는 소색 명주로 종이 심지를 넣어 만들었다. 치마의 폭은 131cm로

일반 치마에 비하여 좁다. 기증자 어머니의 결혼식 1940년 12월에 입었던 것이다.



## 20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Jacket

1920년대

길이74cm 화장63cm 품48cm

당의는 궁중 여성과 사대부 부인이 저고리 위에 입은 소례복小禮服이다.

비빈妃嬪의 것은 금박金箔이나 직금織金으로 장식하였으나 사대부 부인의 것에는 장식하지 않았다.

이 유물은 수자문壽字紋·표주박문(瓢紋)이 있는 생고사生庫紗 홀겹으로 지은 하절기용으로

완순군完順君(고종황제의 사촌)의 손부인 신계완(22회)동문이 입었던 옷이다.



## 21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Jacket

1920년대

길이75cm 화장62.5cm 품40cm

1920년대 혼례에 입은 당의로 소화문小花紋이 있는 청록색 광사廣紗 겹감에 분홍 생초生紬를 안감으로 넣어 겹으로 만들었다.

## 22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Jacket

1950년대

길이85.5cm 화장72cm 품48.5cm

겉은 연두색 용문·봉문 대접문 갑사로, 안은 분홍숙고사로 하고 자주색 화문 숙고사로 겹고름, 안고름을 만든 하절기용 겹당의이다. 소매부리에는 흰색 거들지를 달고 그 위에 소화문小花紋과 쌍희자문雙喜字紋을 금박을 찍었다.

깃과 고름에도 수복자문, 쌍희자문과 소화문 금박을 찍었다. 얇은 소재의 특성상 연한 살구빛을 띠며 깃과 시접 부분에서 본래의 색상을 확인할 수 있다.





## 23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Long Jacket

1940년대

길이90cm 화장67cm 품40cm

1940년 혼례에 만든 당의로 연두색 관사官紗 겹감에  
진분홍색 7족항라尙羅를 안으로 넣어 겹으로 만들었다.  
일반 당의 보다 길이가 매우 길고 쟁친 무명으로 넓게 만든 거들지가 독특하다.



## 24 민간원삼 圓衫

Wonsam. Bridal Robe

19세기 말

길이117cm(뒤) 화장83cm 품48cm

민간 혼례용 원삼으로 길과 소매 부분은 두록색 숙고사熟庫紗로 색동은 홍색과 황색, 남색, 한삼은 소색 숙고사로 지었으며 안감은 홍색 명주를 넣었다. 궁중용과는 달리 안단에 남선을 두루지 않았으며 어깨와 도련에 금박을 찍지 않았다. 가슴에는 정사각형의 홍색 숙고사에 원형의 쌍학문雙鶴紋과 박쥐문 금박을 찍어 흉배 대용으로 붙였다.

홍색 대帶 역시 숙고사로 만들었고 수복강녕壽福康寧 이라는 길상문吉祥文을 금박하였다.



## 25 민간원삼 圓衫

Wonsam. Bridal Robe

1920년대

길이115cm 화장95cm 품52cm

민간 혼례용 원삼으로 길과 소매 부분은 표주박문과

수자문이 있는 녹색 생고사, 안감은 황갈색 면으로 지었다.

색동은 자주, 녹, 홍, 황, 남색, 한삼은 소색 명주로 만들고

동정에는 종이심지를 넣었다. 용문 갑사로 만든 홍색 대를 만들었다.





## 26 갓저고리

*Gat-Jeogori.* Fur-lined Jacket for Women

1910년대

길이46cm 화장76cm 품56cm

갓저고리는 개화기에 개성지방을 중심으로 추운 지방에서 착용하였던 방한용 겹옷이다. 정교한 구름과 박쥐무늬의 회갈색 양색단 겉감에 양털로 안을 넣고 담비털 테모를 둘렀다. 혼례에 입었던 옷으로 멋스러운 색에서 품위가 느껴진다.



## 27 장옷 長衣

*Jang-ot.* Coat Style veil for Women

1940년대

길이144.5cm 화장75.5cm 품46cm

장옷은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처음에는 중인 이하에서 사용하였으나 양반층까지 착용범위가 넓어졌고 지역에 따라 혼인날 착용하기도 한다.

이 유물은 1942년도 황해도 지역에서 서양식 혼례 후 폐백 때 착용한 것이다.

연두 바탕에 붉은색으로 수자문壽字紋·표주박문(瓢紋)·박쥐문(蝙蝠紋)을 큼직하게 넣은 문단紋緞으로 만들고, 소색素色 모본단模本緞 동정과 거들지를 달았다.

자주색과 홍색 고름을 각각 1쌍 달아 손으로 모아 쥐어 여미게 하였다.



## 28 단령 團領

*Danryeong*. Ceremonial Robe for Bridegroom

20세기

길이120cm 화장77cm 품50cm

단령이란 둥근 깃을 뜻하며 주로 문무백관의 시무복時務服으로 입는 옷이나, 서민의 혼례에 남자의 예복으로도 허용되었으며 근대까지도 입었다.

이 옷은 남색의 불수호로문佛手葫蘆紋 생고사生庫紗 겹감에 주황색 능형쌍십자문菱形雙十字紋 생고사를 안감으로 대고 녹색 쌍학雙鶴 홍배가 부착되어있다. 이 홍배는 관복官服의 홍배가 사실적인 표현으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품격과 달리, 비교적 거칠게 수놓아졌다. 반면 도안과 색의 생략이 오히려 우리의 감각에 친근한 감을 주는 소박하면서도 생동적인 근대 서민 자수 공예품이다. 한상수자수박물관 소장





## 29 원삼 圓衫

Wonsam. Bridal Robe

20세기

길이 119cm 화장 92cm 품 51.5cm

본래는 궁, 반가의 대례복이나 혼례 때에만 서민에게 허용되었던 신부용 혼례복이다.

녹색 수자호로문壽字葫蘆紋 숙고사에

홍색 석류불수도화문石榴佛手桃花紋 갑사를 안감으로 대었으며 앞가슴에 쌍학雙鶴 홍배가 수놓아 부착되어 있다.

한상수자수박물관 소장



### 30 활옷 華衣

Hwal-ot. Embroidered Bridal Robe

20세기

길이123cm 화장100cm 품51.5cm

혼례용 활옷으로 화려한 자수가 돋보인다. 천도, 석류, 모란,

연꽃, 매화, 국화, 영지, 나비, 꿩 등의 다양한 길상 문양을 자수하였다.

특히 연꽃 화분은 부부의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았다. 겹감 홍색 진주사이고

안감은 노방을 넣었고 맞깃에는 청색과 홍색 각각 한 쌍의 고름을 달았다.









### 31 도투락댕기 道吐樂唐只

*Doturak-Daen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20세기

길이 119cm 너비 29.5cm

예장용 댕기의 하나이다.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원삼이나 활옷 등 혼례복을 입고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쪽 뒤에 길게 늘인다. 일자형 댕기의 중앙을 제비부리로 접어 두 가닥이 되게 바느질 하여 댕기를 고정시킨다. 검은색 화문사 바닥에 붉은 색실을 늘이고 그 위에 산호와 실꼭지로 장식된 여러 형태의 은파란으로 꾸민 도투락댕기이다. 사직紗織 조각으로 만든 꽃장식이나 잣물림 위에 상모, 박쥐, 화문 등 여러 형태의 은파란 장식을 놓고 그 위에 금사를 휘감아 장식하였다. 댕기 중앙에는 실꼭지로 장식된 은파란과 정교하게 조각한 백옥판, 석옹항 등이 달려있다. 일암관 소장







### 32 고이댕기

*Goi-Daen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19세기  
길이247.5cm 너비10cm

고이댕기는 서북지방에서 사용하던 댕기로 혼인, 회갑 등 의식 때 머리장식으로 사용하였다. 다른 댕기에 비해 길이가 길고 화려하며 정교한 수繡로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이댕기의 형태는 흑공단黑貢緞 바탕에 십장생을 수놓고 양 끝에 숨을 두어 원형으로 만든 뒤 산호와 진주로 장식하였다. 댕기를 반 접어서 쪽을 싸두고 잠두簪頭쪽에 한 두 번 감아서 늘어뜨린다. 또한 지름 10cm의 원을 만들어 진주를 가득히 박아 원형의 진주 꾸러미를 1쌍을 만들고 뒷면에 고리를 달아 댕기 중심에 꿰매고 댕기 끝을 왼편 비녀 끝에 걸고 진주꾸러미가 남자 머리에 놓이도록 한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 33 고이댕기

*Goi-Daen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20세기  
길이236cm 너비8.8cm

검정색 뉴뚱으로 만들어진 북한지방의 혼례용 댕기이다. 한쪽에는 피어오르는 두 줄기의 모란 사이로 영지와 봉황이 있고 그 위로 날아드는 새 두 마리가 입에 보석을 물고 있는 모습은 부귀와 부부간의 화합을 상징 듯하다. 다른 한쪽에는 십장생문과 백년동심百年同心 등을 수놓아 변함없는 부부의 마음과 백년해로를 기원하였다.



### 34 고이댕기

*Goi-Daen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20세기  
길이|245cm 너비|12.5cm

질은 수박색 화문주에 십장생과 모란 위에 한 쌍의 나비를  
정교하게 수놓아 부귀와 장수의 염원을 담았다.  
일반적인 고이댕기 양끝이 원통형인데 비해 이 유물은 평편하게  
끝이 모아지는 형태이며 기하문 수를 넣고 홍, 남, 황색의 봉술이 달려있다.  
북한지방의 혼례에 사용하였다. 일암관 소장



### 35 앞댕기 唐只

*Ap-daen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20세기

길이169cm 너비9cm

예장용 댕기의 하나로 드림댕기라고도 한다. 혼례복에서 뒷댕기인 도투락댕기와 짝을 이룬다. 이 유물은 너비 9cm의 검은 문단 소재로 화문, 영지문, 석류문, 동자문, 복자문 등을 금색실로 수놓았으며 양 끝에는 구슬로 장식하였다. 북한지방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암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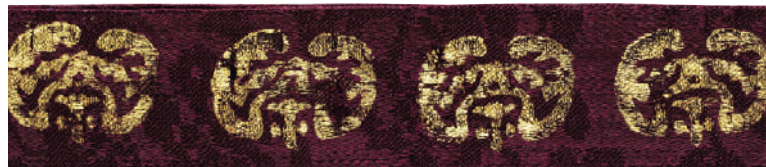




### 36 진주댕기 唐只

*Jinju-Daen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20세기  
길이64.5cm 원판 지름6.2cm

진주댕기는 개성開城 지방 혼례에 뒤텁기로 사용하는 예장용 댕기이다. 댕기의 중앙에 두 개의 원형 바탕에는 진주장식을 채웠고 그 아래에 산호와 진주로 장식한 마름모형 장식을 두었다. 댕기의 양 가닥에는 진주알을 일정한 간격으로 장식하고 반대편 댕기의 끝은 산호로 장식하였다. 일암관 소장



### 37 쪽댕기

*Jjok-daengi.* Hair Ribbon for the Chignon

20세기 초

길이 56.6cm 너비 2.4cm

쪽을 장식하였던 댕기로 자주색 문단으로 만든 작은 댕기 위에 박쥐 금박을 올리고 자개로 정교하게 만든 화형을 청파리, 홍파리로 가운데를 장식하여 화려하다. 의왕비께서 사용했던 유물이다.